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이 함께 모여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2023 년에도 가정을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나아갑시다.

예배 준비

인도자

2023 년에도 우리 민족 고유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이름 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동안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

588 장(공중 나는 새를 보라)

다같이

- 1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어나
- 2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해도 /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 3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 4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 내일 염려 하지 말라 오늘 고생족하다

가족 대표기도

말은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 가족과 함께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지내게 하시고, 추석 명절을 통해 온 가족이 기쁨으로 모였습니다.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 아멘

성경봉독

마태복음 6:25~34

다같이

-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 26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 27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 28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 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 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 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 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태조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하자, 고려 충신 72 명이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며 두문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성계는 그들의 충성심을 높이 사서 새로 등용하고자 했지만 그들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불을 질렀는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고려왕조에 충성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나라 백성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나라와 그의 의’ 여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나라와 그의 의’가 아닌 다른 염려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31 절).” 인간은 육신을 위해 끝없이 염려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에 매여 있습니다. 주님은 의식주없이 살라고 영똥한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32 절)”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또 염려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날을 염려합니다. 내일이 되면 또 그 내일을 염려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34 절).” 내일 일을 염려하면 오늘 일을 못하게 됩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께 두고, 마음의 여유를 찾아야 합니다.

염려를 떨치고 나서 할 일은 하나님나라와 그의 의에 집중할 일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33 절).”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먼저 건져야 합니다. 마른 옷을 준비하는 문제는 그 다음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딤후 2: 4).”

염려에 빠져 하나님나라와 그의 의를 뒷전에 두지 맙시다. 하나님나라와 그의 의를 맨 앞에 둡시다. 그러면 바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3년

축복 가정예배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여한 가족들과 함께
뜻 깊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더불어 사는 교회
순천중앙교회